



도란

도란은 “여럿이 나직한 목소리로
정답게 서로 이야기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온라인에서 만나요



사람을 이어주는 든든한 파트너
소통하는 복지서비스로 우리 이웃의 활기찬 삶, 건강한 행복을 만들어 갑니다.
www.kjwc.or.kr

‘소중한 _____ 님께 드립니다’

도란

통권 제127호
마지막 종이소식지
2021. 12



127호를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소식지 발행을 마감합니다.
이후에는 온라인 소통채널로
계속 만나요

- 03 여느글 연결의 시대, 사람과 사람을 잇는다
- 04 소식지 변천사 ‘도란’은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 06 도란, 이제 안녕
- 08 복지관 웹진안내 안녕, 우리 온라인에서 만나
- 10 여성사업 소식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
- 12 가을 나들이를 다녀와서 향긋한 꽃내음과 상쾌한 바람 그리고 좋은 사람들
- 14 리틀빅히어로를 찾아서 영암마트 신창점 대표 박건택
- 16 마을에게 묻는다 복지관은 동림동에서 어떤 이미지인가요?
- 18 마을소식 우리는 당사자의 삶이 녹아있는 마을로 향합니다
- 20 나눔을 실천하는 리틀빅히어로
- 22 사례연구 스포츠 활동을 통한 운동능력 향상 프로그램

발행일 2021. 12 발행인 김미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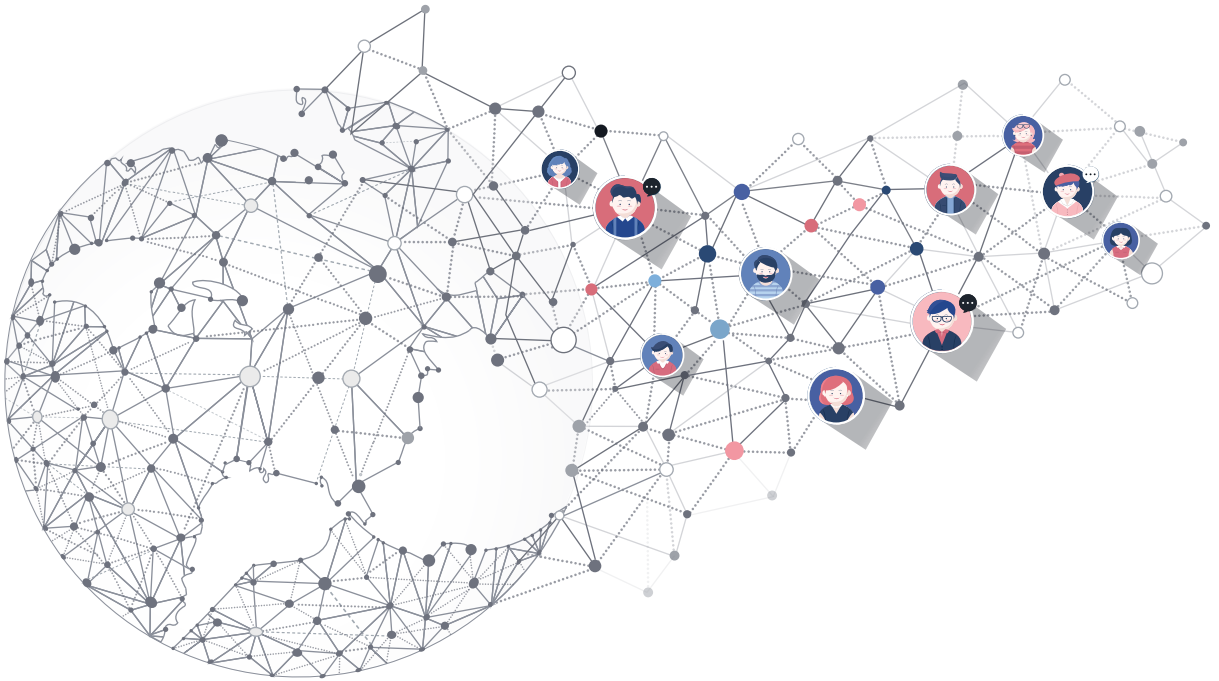
편집인 김호곤, 김선철, 정충섭, 김희남, 정진선, 정유현, 하덕심, 이은진, 권은경, 선가은, 염건이

발행처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219

홈페이지 www.kjwc.or.kr 전화 062-513-0977 팩스 062-513-4700

디자인·인쇄 이미지뱅크

*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소식은 복지관 홈페이지를 통해 계속 제공됩니다.



연결의 시대, 사람과 사람을 잇는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새로운 세상은 우리 삶의 많은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모든 이의 삶에 중요한 '교육'과 '일' 그리고 '소통방식'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며 우리 삶의 모든 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고 무수한 장애물을 넘어, 벽을 허물고 더 가까이 다가가,
서로를 알아가고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다."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에 나오는 라이프(LIFE)지의 모토입니다.
연결된 세상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목적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란’은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1988년 복지관이 개관하면서 발행된 소식지는
지역내 장애인들에게 재활정보를 제공하는
소중한 정보전달 매체였습니다.
이후 소식지는 행복한 마을살이의 정보를 알리고,
우리 복지관의 사업홍보 채널로 거듭나면서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인식개선을 위하여 발행되고 있습니다.
1호부터 127호까지 주요 연혁에 맞춰 다시금 돌려봅니다.



1988. 겨울
창간호
‘광주재활’ 발간

1995. 여름
체육관
개관



2004. 봄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위탁운영
분기별 발행



2004. 여름
‘꿈이있는 빛고을’
명칭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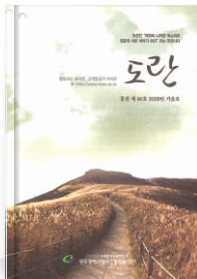
2005. 여름
복지관
문화센터 개소



2007. 가을
여성장애인역량강화
프로그램 수행



2008. 가을
감각운동실
개소



2009. 가을
‘도란’
명칭 변경



2010. 가을
가을음악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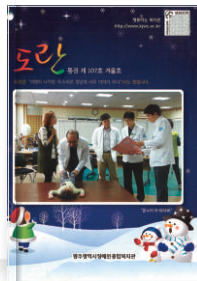


2012. 가을
산재장애인 사회훈련
수행기관 선정

‘도란’의 의미는 ‘여럿이 나직한 목소리로
정답게 서로 이야기하다’라는 뜻입니다



2013. 봄
여행바우처사업
수행기관 선정



2014. 겨울
치료실
기능보강



2015. 여름
도전 골든벨
개최



2016. 여름
광주복지재단
위탁운영



2017. 봄
HSC
서비스 개시



2017. 겨울호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개시



2018. 01
개관 30주년 기념
반기별 발행



2019. 12
늘푸른도서관
개관



2020. 07
광주수어통역(지원)
서비스 개시



2021. 01
광주사회서비스원
위탁운영



2021. 07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지원센터 설치



2021. 12
오프라인 도란
소식지 종료

A hand is shown from the left, holding a small, rectangular piece of white paper with torn edges. The paper is held between the thumb and index finger. The background is a bright blue sky with soft, white clouds. The text on the paper is in Korean, written in a dark, serif font.

도란, 이제 안녕

코로나 19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소통방법이 확대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변화속에 우리 복지관의 '도란' 소식지도 변화를 맞이합니다.

2021년 12월, 127호를 끝으로
오프라인 소식지의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온라인에서 만나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온라인 소식으로 함께해요.



안녕, 우리 온라인에서 만나

우리 복지관은 2021년 7월부터 매월 온라인소식지(웹진)을 제작하여 복지관 이용 장애인,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소식지는 복지관 소식, 이모저모, 지역주민의 소식, 후원감사인사, 참여자이벤트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주민에게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까운 온라인에서 우리 계속 만나요.



사람과 사람이 마을에서 모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복지관은 꿈꿉니다.

그런 공동체를 위한 복지관의 노력과 염원을 담아보겠습니다.

우리 복지관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을 이어주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복지관 웹진 바로보기



웹진 구독 신청하기

* 웹진 구독을 신청하면 이메일로 매월 발송됩니다.

2021. 11. 발행 웹진

2021. 9. 발행 웹진



[Monthly Webzine] no. 2109 2021.09.01

모두 다 꽃이야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대로 피어도
아름답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올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대로 피어도
아름답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집도현, 집다현 자매의 '모두 다 꽃이야' 노래 가사 중 일부입니다. (모두 들어보기)

우리네 모습은 어느산에 있든, 어느 마을에 살든, 어떤 모습이든 모두 같은 삶을 영위하는 평범한 마을 속 시민입니다. 우리 복지관은 모든 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보편적 행복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항상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관의 8월 이야기를 전합니다. 복지관은 매일 여러분을 만나려 합니다.

givelfare

지난 8월 복지관 이야기

1. 복지관 소식 이모저모
2. 8월의 동원마을 소식
3. 카카오톡이까지 '아름고와 행복가 함께 걷는 세상살이'
4. 복지관 유튜브 채널 구경하세요.
5. 복지관 소식지 [도란] 감성평 이벤트 당첨자 발표합니다.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오르래인 소식지
'도란' 복지 참여 이벤트 당첨자 발표»
'도란' 재미있게 읽어보셨어요? 매번 온라인으로 소식을 만나 조금은 서운하셨을텐데요. 가을가을한 오르래인 '도란'소식지의 매력도 있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바일 종료루트 발송해 드릴게요.

·당첨자(후대번호포함): 7269, 7511, 1551, 4845, 4945, 6827, 6025, 4317, 2005, 8592

복지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의 응원으로 복지관은 힘있게 움직입니다. 🍎

우리 이웃의 활기찬 삶과 건강한 행복을 위해 늘 노력하겠습니다.

함, 저희 복지관은 카카오톡플러스친구를 통해 가장 소식 전달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어요. 벌써 625명이 합께하고 있어요, 어서 [채널로 참여](#)하세요.

이번호 <9월이면 가을이지요> 어떠셨나요? 아래 카카오톡 채널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카톡채널추가

복지관 카카오톡 채널 가입서비스 오픈

문의: 010-9900-1111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실시간 1:1 카카오톡 상담

충주중앙장애인종합복지관

010-9900-1111

매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기

실시간 1:1 상담하기



[Monthly Webzine] no. 2111 2021.11.01

이제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단계적 사회개방)'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그레도 코로나와 '같이' 아닌 '새로운 시작'인 만큼 사회적거리두기 역속을 꾸준히 살펴본 중입니다.

시간과 낙원

덴탈로 기억을 거닐다 떨어지는 낙엽에 그간 잊지 못한 사람들을 보낸다
봄겨울 들은 하늘에 그간 함께 못한 사람들을 올린다
날 여백는 단풍에 모든 걸 내어주고 살포시 기대본다
가슴의 꽃과 나무 시들여지고 깊게 봄겨울 깨나지 못할 기억
그 곳에 향동에 버린 그대라고 아름다운 것이 슬프다

가을이 되니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낙엽'입니다.
복지관 곳곳에 흩뿌린 낙엽을 살피며 지난 기억을 꺼내보니
악동유치생의 #시간과 낙원 노래(음악놀이)가 떠오릅니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감싸 안을 단풍을 보며 멋진 기억을 떠올리는 11월 되세요.

저희 복지관도 [여러분](#)과 함께 가을을 만끽하며 단풍놀이 떠나보내려 합니다.
오늘은 복지관의 11월 이야기를 전합니다. 복지관은 매일 여러분을 만나려 합니다.

givelfare

지난 10월 복지관 이야기



<카카오톡이까지 만나보기>
#고마운 5,245명
#5,280,200원

지난 9월 한달 394명의 직장기부와 48,851명의 참여 기부로 '미연세에게 편한한 참차리가 마련되는 기억'이 일어났습니다.
복지관도 미연세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보기](#)

카카오톡이까지 만나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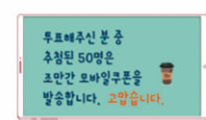
후원 소식 바로보기



<같은길, 다른길>
전통필체와 벼랑예인이 동행하며 같은 길을 걸고있지만 다른길을 걸었던 장여연씨게 신 영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니는 길에 조금만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것 같아요.

영상보기...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복지관 슬로컨 참여 당첨자 발표>
여러분!!
여러분의 도움으로 복지관 슬로컨이 확정되었습니다. 참여에 감사드리며 후포해운신 400여명의 참여자 중 50명에게 모바일 커피쿠폰을 발송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복지관의 성장입니다.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

여성지원팀 하덕심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 흐름

상담의뢰



초기상담



개인별 프로그램 설계



종합
상담

역량강화
교육

지역사회지원
연계 서비스



사후관리 / 자조모임 및 멘토링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은
여성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상담-교육-연계서비스가 가능한
ONE-STOP 지원사업입니다.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17년도부터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제약으로 역량강화의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상담 및 사례지원, 역량강화교육을 비롯하여 자조모임·멘토링, 지역사회연계서비스 등 ‘여성장애인복지관’이라고 불릴만큼 다양하고 체계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 사업이 시작된 초기, 당사자에게 역량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2021년 현재, 당사자의 역량을 발굴하여 멘토와 강사로서 직접 활동하고 사회활동에 참여 기회를 마련하는 등 직접 계획하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별히 2019년도부터는 당사자의 개별재능을 발굴하기 시작했고, 본인이 배웠던 것을 다른 분들에게 가르치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재능을 활용하는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 멘토링 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의 초창기 반응이 ‘재미있는 것을 배워볼 수 있어 좋았다’가 많았다면 지금은 ‘내가 직접 참여해보니 참가자들의 역량뿐 아니라 나의 역량도 많이 커지고, 자신감이 생기네요’의 반응으로 달라진 것을 느낄수 있다.

지난 5년간 700여명의 여성장애인이 캘리그라피, 한지공예, 코바늘&뜨개 등 역량강화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여성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존하도록 노력한 결과 여성장애인만의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은 여성장애인들의 사회활동에 어느정도 성과를 나타냈다 할 수 있다.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에서는 앞으로도 당사자의 자기계발과 역량강화를 위한 걸음에 발맞춰 함께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여성장애인 당사자분들을 보신다면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가을 나들이를 다녀와서

향긋한 꽃내음과 상쾌한 바람 그리고 좋은 사람들

서숙자 (복지관이용자)



높은 가을 햇살 아래 모처럼의 나들이,
넘어지지 않게 손잡아주고
잔디밭에서 쉬면서 깊은 속내를 나누는 시간은
평범한 일상인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평생학습지원팀에서 주관하는 가을 나들이를 다녀왔다. 10월 28,29일, 11월 2,3일 총 4회중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여 소규모로 다녀올 수 있었고 모두가 가고 싶었던 장성 황룡강 생태공원을 나들이 다녀왔다.

필자는 10월 28일 12시 20분경 목적인 장성호로 가는 복지관 버스를 타고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하였다. 광주를 떠나 장성 남면쯤 가는데 '가을 단풍으로 예쁘게 옷을 갈아입은 들녘과 많은 감나무들에 가지가지 마다 예쁘게 매달려 있는 감들이 아름답구나' 하며 바라보면서 감상하고 있는 찰나에 어느새 황룡강에 도착하였다.

평생학습지원팀 박계분 팀장님과 직원들은 안전한 하차를 위해 조심스럽게 손을 잡아 내려 주었고 휠체어를 밀어주는 그 정성들은 오래된 친구처럼 복지관과 가까운 이웃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한껏 기분 좋아 웃으며 황룡강변 꽃 길을 걷노라니 내딛는 발걸음마다 맑고 깨끗한 강물 창공에 스치는 가을바람은 예쁜 꽃들을 춤추게 하고 참여자들의 마음도 들쭉이게 하였다.

가을 높은 햇살하늘아래 모처럼 나들이를 함께 하면서 서로 넘어지지 않게 손잡아주고 잔디밭에서 쉬면서 깊은 속내를 털어놓고 정담을 나누는 시간은 평범한 일상인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우리들의 다정했던 정담 시간은 "복지관 직원들의 노고덕에 이렇게 함께 만나서 구경도 하고 정담도 나누었다." 라는 누군가의 말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뒤이어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이 하루만 있어 아쉽다." 라며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고 또 다른 사람은 "이런 기회를 마련한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감사하다."라며 거듭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좋은 사람들과 상쾌한 바람을 온 몸으로 충전하면서 건강해지고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다.

리틀 빅 히어로를 찾아서



가까운 일상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작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또 한 명의 '작은 영웅 이야기'를 전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암마트 신창점 대표 박건택입니다.

복지관 후원을 시작하게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저는 영암마트 신창점에서 10년동안 종사자로 근무하고 매장을 인수하게 됐는데 함께 근무하던 대표가 먼저 복지관과 인연을 맺고 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복지관을 알게 되며 후원에 동참하게 되었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역주민의 삶이 개선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후원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후원을 통해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제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후원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직접 후원을 하지 않다 보니 관심이 부족했습니다. 이후 매장을 인수하며 복지관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게 되었고 지역사회 변화에 기여하는 활동을 살펴보면 후원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후원을 하다보니 보람이라기보다는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되지 않은 역할로 지역 주민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느꼈던 부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후원을 처음 시작하거나 미래의 후원자 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처음 후원을 시작하는 것은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1만원, 2만원이라도 소액으로 시작해본다면 작지만 소중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작은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누구나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의 시작은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원을 통해 자신에게 돌아오는 물질적인 소득은 없지만 함께 살아가고 있는 주변에 대한 관심과 따뜻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 매우 뿌듯합니다.

복지관을 비롯해 주변복지기관에 나눔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주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표님의 마음가짐은 모두에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커다란 바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주민을 소비자가 아닌 이웃으로 바라보고,
나보다는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영암마트 신창점 박건택 대표님을
저희 복지관은 언제나처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관은 동림동에서 어떤 이미지인가요?

우리 복지관은 동림운암지역에 지역에서 35년을 마을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주민들은 복지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바로 복지관의 방향입니다.



Q. 동림운암지역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평소 복지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요?

- 장애인 복지회관이 일반시민도 이용가능하나 장애인만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이미지가 강해 조금더 친근한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동림운암복지회관', '동림운암시민회관'이라면 어떨까요?
- 오래전 수영장을 이용한 기억과 투표하러 다닌 기억뿐입니다.
조금 더 주민과 소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관이 가까운 곳에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 복지관에 대한 안내나 이용방법 등을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홍보해주세요.
- 장애인들만 이용하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래전 아이 어린이집 체육대회 장소로 이용했었고 최근에는 평생강좌를 들어본적 있습니다.
우리 동네 시설로 이용할 수 있어 좋고 복지관이 있다는 것이 동림운암동을 구성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다만 시설이 오래되어 내부리모델링과 주차장에 태양광패널 또는 그늘막설치 등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장애인 복지관이 있어 마음 든든하고 좋습니다.





모다공동체(협력활동 논의)



❤️ 💬 📌
#오월길 걷기



책이랑 보드랑

Q. 장애인복지관은 동림운암지역 주민들에게 향후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을까요?

- 🗨️ 힐링카페, 친수공원 연계해서 특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과 체험 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 🗨️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알 수 있도록 주민대상 홍보가 필요합니다.
- 🗨️ 주차장시설 리모델링하여 야간에 주변아파트 주민에게 공유주차장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복지관 뒷편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역주민들이 주말에 산책, 소풍장소로 활용한다면
지역내 복지관으로 역할을 확대할거라 기대합니다.
- 🗨️ 우리 지역 분들이 복지관을 좀 더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마을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쉽게 이용하고
혹시 모를 편견을 없애주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가령 어르신들 심터나 상담소, 어린이 작은 도서관이나
주간 돌봄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들기, 종이접기, 보드게임, 책 읽기, 요가, 함께 산책, 마을 주변 청소봉사 등 일주일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들어서 장애인분들과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듯 합니다.
-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할 수 있는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 문화시설 및 행사가 다채로웠으면 좋겠어요.
아니바다 행사나, 즉석먹거리 및 오픈되어있는 공간 등이 마련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복지관이 동림마을과 함께 살아가는데 길잡이로 활용하겠습니다.
의견주신 동림마을 주민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우리는 당사자의 삶이 녹아있는 **마을**로 향합니다

마을활동팀

2018년, 우리 복지관은 오롯이 장애인당사자의 삶에 집중하는 재가복지 중심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을 장애인당사자의 삶을 지역주민과 함께 녹일 수 있는 마을 중심 복지서비스로 전환하였다.

장애인당사자의 삶은 당사자만이 아닌 주변 주민과의 관계속에서 살피야 한다는 ‘공생성’에 집중하며 당사자의 생활권 내에서 마을 중심 복지서비스 실천으로 행하고 있다.

2018년 10월 북구 지역을 핵심거점으로 상정하고 ‘문흥마을’을 시작으로 다양한 마을과 종합사회 복지관, 마을지원센터 등을 방문하며 장애친화마을사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핵심거점으로 활동 하던 문흥2동 행정복지센터의 참여가 시작되고 적극적인 개입요청에 따라 장애인복지관만의 장애 친화마을만들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협약을 통해 맞춤형 복지팀과의 월 1회 회의를 진행하 고, 솜씨언니, 마을학교, 텃밭, 문화제 등 마을자생단체와의 다양한 연대활동이 추진되었다.



이는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주민 관계망이 확장되고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동체 주민에 장애당사자가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 장애인친화마을만들기는 ‘문흥마을’외 ‘각화마을’과 ‘동림마을’로 확장되었다.

각화마을은 광주에서 취약 계층 밀집도가 가장 높은 각화 주공 영구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마을 활동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과의 관계 맺기를 시작으로 주민들의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주택관리공단 주거복지팀과 협업하여 마련한 마을 거점 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자조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각화동에서 장애인친화마을사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관계 형성을 도모하며,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동림마을은 복지관이 위치해있는 마을로써 그동안 복지관 장애인 이용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복지관 시설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상생하는 친밀한 관계형성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마을 활동가를 통해 지역내에서 이웃간 함께 살아가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행정복지센터와 1인 중장년 남성 회복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이웃 간의 결속력을 다지고 연말 산타 행사에 이르기까지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친화마을만들기는 당사자의 삶은 주민과 공생해야 지속가능하다는 근본 아래 장애 당사자들이 주체적으로 이웃 주민과 어울려 활동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문흥마을, 각화마을, 동림마을 각각의 거점 마을 특성을 이해하고 경험을 공유하여 장애인복지관만의 마을만들기에 더욱 집중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은 활동이 장애인친화마을로 보다 많은 지역으로 확산되길 기대해본다.

나눔을 실천하는 리틀빅히어로

나눔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만드는 소중한 가치, 우리 이웃들이 기억합니다

2021.06.01. ~ 2021.11.30



후원금 39,304,668원 / 198명(기관 포함)

강다연 강병호 강하나 고아라 고은정 고진희 공미현 국현표 관혁영 기광숙 김경란 김경태 김광인 김군수 김난영 김남희 김내문 김다겸 김대욱 김두영 김명경 김미라 김미란 김미선 김미진 김바석 김선미 김선철 김성아 김성주 김성중 김소미 김수빈 김수인 김신이 김연우 김영란 김영순 김영아 김예겸 김원조 김유성 김은우 김은주 김은채 김은호 김자영 김재형 김종천 김지애 김진선 김태영 김하람 김하성 김향숙 김현명 김현미 김현옥 김형준 김혜경 김혜진 김호곤 나현철 노경희 노만식 노시원 민지선 박계분 박상은 박양렬 박영지 박영준 박재형 박종록 박창주 박춘길 박춘주 배기현 배민경 백선희 변금섭 서덕원 서란희 서문학 서미혜 성현정 손동혁 손은숙 손일순 송경호 송기철 송승경 송윤호 송준 신목이 신윤희 신은주 신화진 심선례 안나영 안미현 안진관 양대열 양지원 양형준 양희경 영진이 영태후 오영남 오유정 오정우 오정원 오혜인 오호택 위은희 유상진 유수경 유승민 유점석 윤경자 윤명선 윤유미 윤호석 이강 이경 이경진 이경진(음역) 이경희 이석원 이설아 이성심 이수진 이은진 이준석 이지태 이진희 이현아 이화진 임선심 임윤희 장미라 장승길 전현정 정수우 정순희 정연 정용은 정유담 정유현 정윤지 정진선 정효현 정희윤 조경희 조계철 조옥기 조혜진 주선영 주여진 차남경 채혜정 최가는 최강용 최병훈 최승화 최영미 최원명 추영이 하경민 하덕심 한미숙 한성주 한수재 한태창 홍용우 홍준선 홍진배 황기실 황경숙 황의홍 황진희



후원물품 30,907,210원 / 27명(기관 포함)

국립관 김미란 박성규

(적)디자인엔보두 (주)영암마트신창점 YMCA 광주디자인진흥원
광주시각장애인종합복지관 광주재능기부센터 농업회사법인(주)선우
다미푸드 라파엘치과의원 롯데글로벌로지스(주) 보훈병원 빛기람국밥
빛고을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에스엘그룹 영암마트각화점
오색빛협동조합 오에이솔루션 장모님반찬 주식회사 에코플랜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침줄은한방병원 치킨상사 캐리어에어컨
무등총판 피파레브



자원봉사자 81명

권정옥 김경중 김민규 김민주 김상희 김성자 김숙영 김순희 김시형 김영신 김옥자
김유리 김일례 김춘임 나미숙 나현승 박노구 박순례 박순희 박양렬 박정현 박재연
박희숙 박희은 배소윤 배점자 백종문 서영희 서주원 송건호 송승경 신옥진



(주)광명앤드 (주)대명엘리베이터 (주)영암마트신창점 국토건설
 (주)롯데글로벌로지스 부영공인중개사사무소 사단법인 기부천사 우리위원회
 자조모임(인문학) 첨단용두주유소 클로플라스트 하늘빛교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빛교회

인예린 양영재 양은경 오선영 오재영 오지훈 유숙영 유영희 유혜지 윤덕원 윤하은
 이성빈 이성준 이승희 이옥순 이유진 이인선 이혜순 이화연 이희관 임수정 임영근
 장다민 장인자 전경자 전익석 정선영 정시는 정영심 정옥순 정유진 정현정 정혜원
 조란옥 조서연 조정숙 최가현 최경미 최경자 최명숙 최병근 최인숙 최인호 한영심
 한용훈 황다빈 황문자 황영미



여러분의 정성이 담긴
 후원금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에 교육,
 재활, 자립과 복지증진 사업에
 소중하게 쓰입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방법

정기후원

매월 정기적으로 CMS와
 계좌이체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예금주: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

광주은행 069-107-300775
 우체국 504050-01-001081
 농협 601132-51-003083

온라인후원

kakao 같이하기
<http://together.kakao.com/teams/2914>

물품후원

다양한 물품을 후원받아 소외계층에게 전달
 하는 등 장애인복지 사업에 사용됩니다.

자원봉사

일반분야(환경미화, 식당보조, 프로그램
 보조, 행사지원 등) 및 전문봉사

문의 : 후원관련 기획홍보팀 신윤희, 염건이 / 자원봉사관련 운영지원팀 김반석 062-513-0977

※ 후원금 및 후원물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후원 및 자원봉사 게시판)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 활동을 통한 운동능력 향상 프로그램

평생학습지원팀



1. 개요

지적장애아동은 자기 주도의 건강한 생활방식을 선택하는 능력이 미약하여 기초 체력 부족과 낮은 운동 수행능력을 보인다. 그러나 규칙적이며 다양한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신체 구성과 체력의 변화를 끌어내 지적 장애아동의 운동 능력 향상은 물론 정신적,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여러 가지 영역의 체육활동을 제공하여 아동의 운동기능 향상 및 다양한 영역의 긍정적인 변화를 얻고자 한다.

2. 대상

장애명(장애정도)	연령	발달상황
지적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세	- 간단한 상호작용은 가능함. (예/아니요 정도) - 담당자가 제시하는 과제 수행이 어려움. - 근력이 약하고 운동 수행능력이 부족함. - 체육활동에 관심이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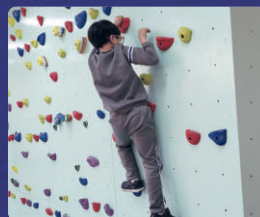
3. 지원계획

장기목표	1. 전반적인 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 2. 그룹 활동을 통해 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킨다.
단기목표	1. 또래에게 관심을 표현할 수 있다. 2. 자신의 순서를 인식하고 차례를 지킬 수 있다. 3. 운동 동작을 정확히 인식하며 모방하여 표현할 수 있다. 4. 기초체력을 증진할 수 있다. 5. 다양한 영역의 운동기능을 습득할 수 있다.
평가 방법	- 체크리스트를 통한 변화 측정

4. 지원 내용



네트운동
(핸들러, 배드민턴, 탁구 등)



근력운동
(클라이밍, 스텝박스 등)



구기운동
(농구, 플로어볼, 축구 등)



5. 평가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11개월) 프로그램 지원 결과를 바탕으로 초기, 중간, 종결 평가를 하였다. 아동이 다양한 영역의 운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면서 운동기능을 습득하고 그와 함께 기초 체력이 증진된 결과를 보였다. 움직임이 많이 부족했던 아동이 눈에 띄게 활발해지고 동작이 정교해졌으며 이 외에도 아동이 또래를 인식하게 되면서 자신의 순서를 지키기도 하고 또래에게 상호작용을 시도하기도 하는 등의 사회적 행동도 증가하였다. 향후 아동의 기능 및 욕구 등을 고려한 스포츠 활동을 꾸준히 지원한다면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1 - 매우 어려움(도움 없이는 불가능) 2 - 어려움(대부분 도움 필요)
3 - 보통(약간의 도움 필요) 4 - 양호(구두지시로 가능) 5 - 매우 양호(스스로 가능)

평가영역	평가내용	초기	중간	종결
사회성	1. 또래에게 상호작용을 시도하기	2	3	4
	2. 사회적 행동을 증가하기	2	3	3
	3. 차례 지키기(질서 유지)	1	2	3
	4. 사회적 언어를 사용하기(감정표현, 격려, 사과, 칭찬 등)	2	3	4
인지/모방	1. 움직임 따라 하기(체조)	2	3	3
	2. 간단한 질문에 답하기	1	2	3
민첩성/ 심폐지구력	1. 왕복달리기(10m)	2	3	3
	2. 5분 이상 연속달리기	2	2	3
유연성	1. 윗몸 앞으로 굽히기 동작	2	3	3
	2. 엎드려 윗몸 젖히기 동작	2	3	3
근력/ 근지구력	1. 윗몸 일으키기 동작	1	2	3
	2. 앉았다 일어서기 동작	1	2	3

adiós

Au revoir

Hyvästi

再见

adjö

Ahoj

До свидания

مع السلامة



페이스북



홈페이지

안녕,

우리 온라인에서 만나

さようなら

selamat tinggal

再見



인스타그램

Tạm biệt

Auf Wiedersehen



카카오톡플러스친구

ha det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Gwangju community inclusion center

우)61266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219

H. www.kjwc.or.kr T. 062)513-0977 F. 062)513-4700 M. gjwelfare@hanmail.net